

“광기와 절망”의 예술: 조셉 콘라드의 『비밀 요원』에 그려진 ‘비정상적’ 개인과 ‘국가’

정서현

“광기와 절망”(madness and despair)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는 누구인가.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의 『비밀 요원』(*The Secret Agent*)은 ‘비정상적’인 인물들의 향연을 통해 과학적 진실의 추구하고 그로부터 가능해질 변영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기대고 있는 허술한 토대를 폭로한다. 이 작품은 내용의 비극성과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불신, 비인간성 등을 근거로 철저하게 비관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프라이(Northrop Frye), 빌리(Billy)와 오어(Orr) 등의 비평가는 앞서 언급한 특징들을 지적하며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를 작품 논의의 핵심으로 제기했고, 무정부주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폭탄 테러를 중심사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리니치(Greenwich) 폭탄 테러 사건과 연관을 짓는 정치적 비평도 다수 존재했다. 이 작품이 특정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작가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전기적 특성에 의거한 정치적 성향을 중심에 두고 작품의 부도덕함, 혹은 일관성 없음을 비판하는 논의가 많았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치적 독해가 간과한 개별 인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위니(Winnie)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의 재현에 주목하며 인간 심리에 대한 작가의 탁월한 감각을 높이 평가한 심리병리학적(psychopathological) 비평들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비밀 요원』의 공적 영역에 집중한 정치적 비평은 작품 자체를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작가 개인의 성향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 왜곡된 해석을 불러왔고, 사적 영역에 집중하는 읽기는 병적인 개인들의 삶에 대한 진단에 그쳐 사회 구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동하는 인물들의 의의를 간과하기 쉽다.

전체로서 작품의 성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인 문제와 사적 문제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정치적으로 보이는 무정부주의라는 소재와 가장 개인적으로 보이는 남편 살해 및 자살이라는 소재가 이 작품에서처럼 결합해야만 했던 주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비밀 요원』을 관통하는 기저의 문제의식은 위니와 벌록의 사적 비극의 중심에 ‘국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때 ‘국가’는 지역적 정치 실체로서의 국가 이상, 즉 구성되고 강요된 질서 및 권위의 궁극체로

서의 ‘국가’이다. 모팻(Wendy Moffat)은 작품 속에서 단순한 희생자(victim)도 주체(agent)도 아닌 위니의 입지를 설명하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국가와 경찰 조직의 문제를 가정 안으로 밀어 넣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국가정치의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조망하는 논의의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¹⁾ 모팻의 지적을 발전시켜 보면 위니의 개인적인 문제는 국가와 국가를 대표하는 경찰 조직이 내포하는 폭력성의 반증이다. 그녀의 ‘비정상적’ 행동들은 우연하고 개별적인 돌출로서가 아니라 인간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전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구체적 징후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고는 콘라드가 사적 영역에서의 사건을 ‘정상/비정상’의 범주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국가’라는 틀의 억압성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밀 요원』은 ‘정상/비정상’이라는 구분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전면에 내세우며, ‘광기’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우스꽝스러움을 폭로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의 반(anti)무정부주의적 특성을 드러내는 반어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정상적’인 인식 체계를 흔들어 놓는다.

1. The Resemblance of Stevie and Winnie: Who is the Mad One?

스티비는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길을 잃기 일쑤인데다 “조용히 국가적 장관을 즐기는 것을 소음으로 방해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기도”(shriek piercingly in a crowd, which disliked to be disturbed by sounds of distress in its quiet enjoyment of the national spectacle; 7)하는 모자란(half-wit) 인물이다. 그는 “덜떨어진 놈”(degenerate), “정신 나간 바보”(crazy idiot) 등으로 불리며 여러 사람의 삶에 “짐”(nuisance)이 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가게를 맡고 있을 때에도 “명목상으로만 책임을 지고 있는”(nominally in charge; 3) 정도의 역할 이상이 기대되지 않고, 위니는 그의 존재를 변호하기 위해 그가 “유용한”(useful)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스티비에 대한 서술은 주변 사람들이 그의 ‘비정상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비정상’으로 그려지는 것은 스티비만이 아니다. 특히 스티비의

1) 모팻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 특수한 희생자인 위니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비정상적’ 개인들에 대한 탄압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성 안에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억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억압성과 별개로 여성으로서 위니가 가지는 특수한 타자성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다.

‘비정상성’이 위니에게로 직접 투사되는 순간의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스티비의 영혼이 보호자이자 후견인인 그의 누나의 가슴에 안식처를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남동생의 얼굴은 소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아랫입술이 처진 모습이며 살짝 사시처럼 보이는 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더욱 닮아 갔다. 그러나 벌록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As if the homeless soul of Stevie had flown for shelter straight to the breast of his sister, guardian and protector, the resemblance of her face with that of her brother grew at every step, even to the droop of the lower lip, even to the slight divergence of the eyes. But Mr. Verloc did not see that. (208)

이 부분은 벌록 씨(Mr. Verloc)의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을 그리지만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서술자의 관점도 드러난다. 서술자는 벌록이 “보지 못한” 스티비와 위니의 닮음을 위니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다가가는 극단적인 폭력의 순간에 포착해낸다.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를 할 때 그녀의 모습을 지적으로 모자란 인물인 스티비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연결이다. 게다가 “과학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는”(submitted to the rule of science) 오시폰(Ossipon)이 사용하는 “그 텅떨어진 놈의 누나, 그녀 자체로 살인자형의 텅떨어진 인간”(the sister of the degenerate—a degenerate herself of murdering type; 230)이라는 표현은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인간은 누구라도 손쉽게 위험한 범법자로 만드는 ‘과학적 사고’의 편협한 폭력성을 고스란히 노출시킨다. 서술자는 스티비와 위니의 연결을 통해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가진 불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벌록 부인이 칼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동생과의 놀라운 닮음이 흐려지며 매우 정상적이게 되었다”(Mrs Verloc had let go the knife, and her extraordinary resemblance to her late brother had faded, had become very *ordinary* now; 208; 강조는 필자)는 서술은 다시 한 번 위니가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음을 강조해 ‘정상/비정상’의 범주를 의문시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위니는 어떠한 모습인가? 위니는 평소에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좋지 않다”(Obviously it may be good for one not to know too much; 135)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정보”(fundamental information)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인물이다. 위니는 자신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되는 가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예의 같은 것은 기대도 하지 않”(She did not look for courtesies from him; 151)으며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녀는 동생

스티비를 자신의 모성으로 감싸며, “잔인함의 개념을 견디지 못하는”(can't stand the notion of cruelty; 48) 그를 자극하는 수많은 말들로부터 지키고자 애쓴다. 하지만 바로 그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과 그의 동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작은 세계는 이처럼 무심하고 무지한 채 아무 것도 의심하지 않아야만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세계이다.

그녀는 지능이 떨어지는 스티비의 동정심을 이용해 혼돈을 얻는 닐 부인(Mrs. Neale)의 행동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물론 그녀가 연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있겠어?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Of course, what is she to do to keep up? If I were like Mrs. Neale I expect I wouldn't act any different; 147)라며 현실적인 조건들에 쉽게 순응하는 인물 유형을 보여준다. 위니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 여기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쉽게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녀에 대한 냉소적 시선이 그녀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담아내고 있다. 위니가 완전히 긍정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는 인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녀는 타고난 악인이거나 특별히 냉소적인 인간이 아니라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통의 인간형으로 그려진다.

별록 씨가 이런 위니로부터 스티비를 빼앗아가 잔혹한 죽음을 맞게 한 것은 그녀를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만든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을 찢어 죽이고, 이 위법의 순간에 “정상”(ordinary)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광기를 보이는 위니가 결국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시폰은 “과학적으로 광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scientifically afraid of insanity; 243). 그는 ‘과학성’으로 인간적 감정인 두려움까지 설명해 정상의 범주에 밀어 넣고자 하는 인물이고,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다시 스스로를 (위니와 대비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 여기며 위안을 삼는다. “과학이 신성불가침의 페티쉬가 된”(The sacrosanct fetish of to-day is science; 25) 사회의 적은 위니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 뿐 아니라 그녀와 스티비의 놀라운 다희, 그 ‘광기’로 대표되는 모든 ‘비정상’이다.

2. State, Police, and the “Normality” they Protect

“집단적 기질은 무법적”(the collective temperament is lawless; 58)임에도 작품 속 인물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법과 경찰의 보호를 꿈꾼다.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위니는 “사회의 수호자로서의 직업을 수행하였으며 가정적인 미덕도 가꾸는”(exercised his vocation of a protector of society, and cultivated his

domestic virtues; 5) 남편을 택했고 그가 “좋은”(good)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며 그 가상적인 보호막 안에서 버티려고 노력한다. 시즈모어(Sizemore)는 위니의 개인적인 불안을 통해 런던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짚어 낸다. 그는 작품 속에서 위니가 주로 등장하는 공간(별록 씨의 포르노 상점)의 폐쇄적 성격을 짚어 내고 이를 폭탄이 든 상자와 연결시켜 해석한다. 이러한 읽기는 이 소설이 위니 자체를 미지의 것으로 표현하고 위협한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며 그 작은 상자를 벗어나는 순간(상자가 열리면서 폭탄이 터지듯) 위니가 얼마나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처럼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보호에 대한 강박이 존재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보호는 풍요로움과 호화로운 삶의 첫 번째 필요조건”(All these people had to be protected. Protection is the first necessity of opulence and luxury; 10)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처럼 제시된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누구에 대한 보호인가? 스킨너(Skinner)는 작품 속 경찰을 “부분적으로 유효하나 불완전한 안전의 토템”(partially effective but imperfect totem of security; 422)이라 정의한다.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의식은 스티비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스티비는 “도시의 경찰이란 악을 제압하기 위한 호의적인 기관이라는 이상적인 관념”(an ideal conception of the metropolitan police as a sort of benevolent institution for the suppression of evil)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모습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의 누나와는 달리 문제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자 하는”(Unlike his sister, who put her trust in face values, he wished to go to the bottom of the matter)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회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쁜 세상”(Bad world for poor people)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 말의 단순한 직접성은 다른 인물들의 의뭉스러운 태도와 대비되어 인상적으로 제시되기에 스티비의 파편적인 말에 담긴 이해가 사회를 가장 진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처음에 스티비가 그렇게 생각했듯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경찰은 치밀하고 엄격하며 과학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사건 수사에서 경찰 조직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범죄자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찰 조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수석 검사관인 히트의 명성에 걸맞은 말이었기에 그것은 완벽히 즐거운 것이었다. 그 고위 관직자는 그 선언을 믿었는데, 그것은 그

가 가지고 있던 사물들의 적합함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This was so obviously the right thing to say for an officer of Chief Inspector Heat's reputation that it was perfectly delightful. The high official believed the declaration, which chimed in with his idea of the fitness of things. (68)

히트(Heat)가 당분간은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이 없을 것이라 거짓으로 보고한 직후의 이 장면에서 사물들의 “적합함”(fitness)은 고위 공직자에 의해 그 무엇보다도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 적합함은 사태의 진실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관념 속에 들어 있는 ‘그래야 마땅한 상태’로서의 적합함이다. “진실한 지혜는 그로 하여금 현재의 지위를 얻는 것을 방해했을 것”(True wisdom . . . would have prevented him from attaining his present position; 67)임을 잘 알고 있는 히트는 진실과는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적당한 말”(right thing to say)만을 말하며 초고속 승진을 이룬다. 고위 관직자(The high official)라든가 그 명사(The personage)라는 어색한 호칭의 반복적인 사용도 이들이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붙잡고 있는 억지스러운 권위의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 ‘적합함’과 ‘마땅함’ 등은 현상의 유지, 즉 기존 권력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을 가리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정상’이라는 것은 마치 강자에게든 약자에게든 일반적으로 합의된 가치인 것처럼 표현된다.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개인들 간의 권력 관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찰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 추정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혁명 시도는 경찰들의 대화 속에서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히트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서까지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진실과는 무관한 ‘적합함’이라는 기준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안전 보장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자만이 ‘정상’이라는 인장과 함께 남에게 휘둘러 수 있는 권력을 보장받는다.

부국장(Assistant commissioner)도 히트와의 긴 대화에서 자신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미케일리스(Michaelis)가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수사의 변칙들은 경찰 조직으로 상징되는 국가적 권위가 사실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잘 갖추어진 ‘정상적’ 원칙대로 행사되지도 않음을 폭로한다. 부국장은 그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잃어버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악한 자유에서 즐거움을 느끼는”(seemed to lose some more of his identity. He had a sense of loneliness, of evil freedom. It was rather pleasant; 118) 사회의 부속품이자 같은 조직 내의 히트와 경쟁하듯 수사를 벌이며 조직의 효율이나 수사의 과학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알고자 하는 경찰로 그려진다. 이 뿐 아니라 “경찰

들이 갖는 만족스러운 우월함의 감각”(satisfactory sense of superiority the members of the police force get), 그리고 “동료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는 것에 대한 야비한 애착(vulgar love of domination over our fellow-creatures; 98) 등의 표현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국가를 수호하는 경찰 조직은 원대한 이상이나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작동하지 않는다. 경찰의 모순적인 행태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는 경찰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권위를 손상시키고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상적’인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틸리아드(E. M. W. Tillyard)는 작품 속에서 큰 두 축을 차지하는 경찰이라는 주제와 벌록 부부의 이야기가 통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비밀 요원』이 “규모의 불균형”(disproportionate scale; 318) 때문에 하나의 통일체(unity)가 되는 데 실패한다고 평한다. 이 논의에서 작품이 다루는 소재들이 보여주는 규모의 차이를 지적해 낸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비밀 요원』이 달성하는 문학적 성취는 바로 이 차이 자체를 다시 의문시하게 한다는 데 있다. 콘라드의 소설 속에서는 개인의 사소함과 국가 권력, 정치, 외교의 중대함이 대등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교직하며 서술된다.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을”(What happens to us as individuals is not of the least consequence; 57)지라도 각 개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틀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들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비밀 요원』은 ‘국가’가 우위에 있고 그에 종속된 더 작은 실체로서 개인이 존재한다는 관념 그 자체를 공격한다. 처음의 위니처럼 국가의 안정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만이 ‘정상적’이라 묘사된 것은 ‘정상성’에 대한 가상의 합의를 내세워 국가라는 추상적 틀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반영이다. 실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가는 작품 속에서 다양한 면모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이곳이 살기 좋은 곳”(this earth which, upon the whole, he believed to be a nice place to live in; 171)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한다. 자연히 더 많은 힘을 가진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세력은 부재한다. 작품 속에서 그러지는 이와 같은 개혁에의 무관심은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이 힘은 ‘외국’과의 단절과 분명한 경계 설정에 의해 강화된다. “외국 정부는 우리 경찰의 비효율성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the foreign governments cannot complain of the inefficiency of our police; 180)는 경찰의 설명은 국가 간 경계가 확고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이다. 국가 내의 문제는 ‘우리’ 경찰이 ‘우리’ 방식대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국가의 경계에 대한 집착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스스로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조에 가깝지만 대부분의 인물이 이에 무력하게 동의하는 모습은 국가라는 틀이 물리적으로나 인식

적으로나 넘어서기 어려운 것임을 내비친다.

대영 제국의 섬이라는 특징이 불쾌한 형태로 그의 인식에 불쑥 들어왔다. “이건 마치 매일 밤 사람을 가둬 놓고 열쇠를 채우는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하며 이 여자를 등에 업고 담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짜증이 났다.

The insular nature of Great Britain obtruded itself upon his notice in an odious form. “Might just as well be put under lock and key every night,” he thought irritably, as non-plussed as though he had a wall to scale with the woman on his back. (224)

남편 벌목을 살해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위니에게 불잡혀버렸다는 생각에 오시 폰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때 그의 감정은 흥미롭게도 섬이라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지리적 특성에 비유된다. 매일 밤 잠긴 채 갇혀 있게 된 것 같은 이 막막한 심사는 위니가 일생동안 처해 왔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 완전한 고립감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결합된 이 감정은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일상적인 현실이자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국가라는 확고한 틀을 통해 보장한 안전의 이면에는 개별 주체들에 대한 통제와 “사물의 내면을 깊이 보지 않게” 하는 눈가림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국가와 같은 거대한 틀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위니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결국에는 국가라는 처벌기구라는 점은 이 작품의 이해에 무척 중요하다. 벌목 부인이 교수대를 두려워했다(Mrs. Verloc was afraid of the gallows; 211)는 사실은 강박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반복해서 제시되는데 이 공포의 특징은 “그녀가 그것을 관념적으로 두려워했다”([she] was terrified of them ideally)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나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궁극의 처벌을 내리는 이 강제의 법칙 안에서만 위니의 가족은 그 외형상으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녀는 이제 국가라는 보호망이자 강제력 앞에 다시 무력해진다. 국가는 결코 개인의 삶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인식 속에 가장 강력하게 존재한다.

작품 속 런던이 보여주는 몇몇 개방성의 제스처들은 오히려 국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압도적인 특성을 가지는가를 암시한다. 작품 속 인물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이탈리아 식당이 등장할 때에도 “이탈리아식 음식점은 너무나도 특징적으로 영국적인 기구”(the Italian restaurant is such a peculiarly British institution; 118)로서 존재하며 런던 시내의 한복판에 무정부주의자들의 지역이 존재하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의 허용은 오히려 그 사회의 보수적 견고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의식에 존재하는 국가라는 틀의 강력함에 대한 신뢰는 이질적 요소들마저도 내부에 품으며 모든 요소들에 ‘정상적인 영국성’을 입혀 안

전하게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3. Anarchism as a Breakthrough?

무정부주의는 이처럼 경직된 사회적 권위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 작품 속에서 벌록은 무정부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사건의 중심에서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는 사회 구조의 수호이지 그것의 완성이나 비판이 아니”(his mission in life being the protection of the social mechanism, not its perfectionment or even its criticism; 12)다. 이토록 명백하게 보수적인 인간이 무정부주의자들 중 유일하게 진짜 행동(action)을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아이러니컬하고, 그 행동이 결국 의도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파국을 불렀다는 점에서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무정부주의자이면서 가족과 직업이라는 사회적 틀을 부여잡고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인간 벌록의 모습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개성보다는 더 실체가 있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부심 역시 개성 밖의 무언가에서 찾아야만 한다”(since a man must identify himself with something more tangible than his own personality, and establish his pride somewhere; 93)는 말로 설명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작해야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인”(in a way political; 7; 강조는 필자) 일을 하고 있는 벌록은 사실 정말 거대한 규모의 안위나 현실의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 무척이나 가정적으로(domestic) 길들여진 인물이다. 그는 그의 가족을 무신경하게 내버려두기만 하지는 않는다. 벌록의 태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동시에 애처롭다.

그는 개인의 가치가 그들 자체 내에 완결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록 부인의 관점에서 스티비의 가치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the value of individuals consists in what they are in themselves, he could not possibly comprehend the value of Stevie in the eyes of Mrs. Verloc. (185)

벌록의 무신경함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가치관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계적인 형상을 너무나 닮아 있어 그의 안에 기계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동인형의 이상한 분위기”(resemblance to a mechanical figure went so far that he had an automaton’s absurd air of being aware of the machinery inside of him; 156)를 내는 그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개인’이 아니다. 위니는 스티비를 위협에 몰아 넣은 벌록의 행동에 분노하며 “상당히 정신이 나가 있는”(quite beside herself; 185) 것처럼 반응하지

만 벌록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들 결혼 생활의 토대인 벌록 부인의 철학적이고 거의 오만하다 할 정도의 무관심”(Mrs Verloc’s philosophical, almost disdainful incuriosity, the foundation of their accord in domestic life; 188)이 무너지자 그 변칙 앞에서 당황할 뿐이다.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왜 그런지 당신은 이해하지 않느냐”(You understand why—don’t you?; 190)고 이해를 강요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 질 거야”(What you want is a good cry; 191)라는 틀에 박힌 끔찍한 결론까지 내린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것으로 만 들고자 하는 인물이며 그는 “자기 자신이기를 멈추지 않고서는”(without ceasing to be himself; 184)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버린 존재다.

현상의 유지를 간절히 원하며 새로운 진실이 자신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기를 원하는 벌록의 특성은 교수(professor)가 그리는 아나키스트들의 모습 일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들의 성격이 전형적인 도덕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질서에 기대고 있다”(Their character is built upon conventional morality. It leans on the social order. Mine stands free from everything artificial; 54-55)는 교수의 비판은 혁명가들에 대한 경멸어린 평가로서 무척이나 적확하다. 그는 “개성의 힘”(force of personality)을 믿고 “보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nothing in the way of protection; 54)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기에 다른 무정부주의자들과 비교해 “자신의 우월함은 명백하다”(My superiority is evident; 55)고 말하며 무정부주의자들의 불안과 평범함을 꾸짖는다.²⁾

교수를 제외한 무정부주의자들의 반란은 실로 희한하게도 권위에 대한 저항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궁지에 몰린 여러 인물들은 외국으로의 도피를 최후의 피난처로 설정하는데 이는 국가라는 권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라는 틀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를 통해 일신의 안전을 꾀하는 반-무정부주의적인(anti-anarchist) 태도이기에 흥미롭다. 테러의 배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동료가 벌록에게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벌록 스스로도 “이민하는 것의 편리함을 고려”(considering the expediency of emigrating; 153)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외국은 접근할 수 있는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은 경찰에게나 무정부주의자들에게나 그저 사고의 편리를 위해 “픽션으로만”(only in fiction) 존재하는 무엇이며 국가의 압도적인 권력과 폭압성은 무정부주의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그 위엄을 자랑한다.

2) 교수는 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완벽한 기폭제를 터뜨려 자신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체제 어딘가에 스스로를 소속시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인물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54).

작품 속 무정부주의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국가 없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존의 권위에 더 저열한 형태로 의존하는 인간들로 그려진다. 모든 형태의 집단과 권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그 정의로 삼고 있는 무정부주의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국가 권력의 강력함을 다시 한 번 굴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2장에서 살펴본 국가 권력의 모순적 특성과 결합하여 국가라는 틀 자체의 허구성을 들춰낸다. 이를 위해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공격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천문대를 향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기준’과 정해진 경계에 대한 도전이다.

합법에 대한 미신과 숭배를 부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히트 반장과 같은 작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대낮에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반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도덕 개념의 와해가 바로 그 성전에 세워지겠죠. 그러나 당신 혁명주의자들은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To break up the superstition and worship of legality should be our aim. Nothing would please me more than to see Inspector Heat and his likes take to shooting us down in broad daylight with the approval of the public. Half our battle would be won then; the disintegration of the old morality would have set in in its very temple. That is what you ought to aim at. But you revolutionists will never understand that. (58-59)

교수의 이러한 선언과 질타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왜소한 몸집으로 세상사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끊어낸 채 그저 말뿐인 이 말들을 내뱉는 그 자신에 대한 조소이기도 하다. 스스로 특별한 인물임을 주장하는 교수가 사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형태의 무정부주의자도 이 작품 속에서 국가라는 통제의 틀을 벗어나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모국어가 아닌 말로 작품을 저술하는 특별한 입지의 소설가로서 콘라드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위코비츠(Rebecca Walkowitz)의 논의는 ‘국가’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콘라드의 주제의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위코비츠는 콘라드의 소설이 규범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회적 과정을 그리고 있어 지각(perception)에 대한 독자의 인식을 자극한다고 지적한다(37). 그녀에 따르면 『비밀 요원』에서 콘라드는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가시적 정체성과 확립된 평판을 모두 불신하도록”(to distrust both apparent identities and established reputations; 38) 만든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사람들이 진짜 그러한 존재의 조건”(conditions of existence, what people really are)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

되는가라는 가시적인 조건”(conditions of visibility, how people are perceived; 38)과 연결시킨다.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해 온 조건들이 유동적일 뿐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기준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 심지어는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인식은 ‘정상/비정상’의 구분과 국가의 경계를 동시에 관통하는 사고이다.

『비밀 요원』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은 아주 뚱뚱하거나 왜소하거나 혹은 옷차림이 개성적이라는 등 외모의 특이성에 주목해 그려진다. 무정부주의자의 특징인 국가적 정체성의 모호함이 일견 그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외양상의 ‘비정상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특히 국가 없는 인물들의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상성’의 문제와 ‘국가’에의 소속이라는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한 국가에 안전하게 소속된 개인에게만 ‘정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그 ‘정상성’을 벗어나면 국가 권력을 앞세운 조직이 개인을 파괴하고 만다. 이처럼 국가라는 틀과 ‘정상/비정상’의 구분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개인들의 의식에 강요된 합의로 자리 잡는다. 콘라드의 소설은 모든 자연스러움, 즉 ‘정상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기준에 기생해 유지되는 국가의 엄격한 틀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폭로한다. 이 구조를 의식한 인물은 그 ‘정상성’에의 강요가 아무리 압도적일지라도 그 구분의 기준들을 의심 없이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국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비밀 요원』 속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에서 국가가 점하고 있는 입지에 대한 오해는 작품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영국은 뒤떨어졌으며 이 나라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센티멘탈한 존중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태”(England lags. This country is absurd with its sentimental regard for individual liberty; 23)에 빠졌다는 지적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신을 옥죄고 있는 큰 틀을 보지 못한 채 감상적인 자유만을 누리며 아등바등 가진 것을 지키고자 스스로를 속이는 개인들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이 반어적이고 모순적인 초상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콘라드의 소설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안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삶을 상상하게 한다.

4. What the Narrator Discloses

브랜틀링거(Brantlinger)는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에 대한 비평에서 콘라드가 제국주의를 그리는 방식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 현실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적 관점의 재생산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현실을 형상화할 때 소설이 피해갈 수 없는 난점을 지적하고 있어 『비밀 요원』이 보여주는 반어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랜틀링거는 ‘현실의 묘사’라는 차원에서 콘라드의 작품에 내재된 보수성을 비판하지만, 콘라드는 반어(Irony)를 주된 소설적 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반성적 사유를 작품에 함께 담는다. 반어라는 기법은 그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이 작품에 필연적으로 채택되며 이것은 결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나 완전한 냉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밀 요원』에서의 반어의 사용은 특징적이다. 콘라드는 “반어만이 자신이 경멸하는 동시에 동정을 느끼며 말해야 한다고 느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ironic treatment alone would enable me to say all I felt I would have to say in scorn as well as in pity; 251)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 형식에 의미를 부여했고, 반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어뜨리고 인물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 암스트롱(Armstrong)은 콘라드가 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아이러니와 공감의 불가능해 보이는 화합”(the impossible but essential task of reconciling irony and sympathy; 95)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아이러니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순과 불명확함을 변호하기도 한다. 작품의 아이러니는 실로 작가의 불가피한 선택을 넘어 작가와 서술자, 그리고 독자가 인식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서도 기능한다. 콘라드는 일관성이 결여된 서술자를 내세우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군데군데 그러나 통합되기 어려운 형태로 남겨 놓는다. “모든 이상화는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것의 복합성이라는 특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즉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All idealisation makes life poorer. To beautify it is to take away its character of complexity-it is to destroy it; 33)라는 미케일리스의 광기어린 연설이 이 맥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술자의 반어적 태도가 가장 확연하게 무너지고 그를 통해 작품의 해석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서술자의 스티비에 대한 묘사이다. 서술자의 표현들은 스티비의 ‘비정상성’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보호와 억압의 경계, 국가와 외국의 경계와 함께 근본적인 의심의 대상이 된다.

스티비는 표현의 대가는 아니었고, 어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생각은 명료함과 정확함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완전하고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존재의 고통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분노를 압축하고 있었다. 불쌍한 마부가 집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핑계로 불쌍한 말을 패며 먹고사는 것처럼. 스티비는 맞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그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빠! 나빠!

Stevie was no master of phrases, and perhaps for that very reason his thoughts lacked clearness and precision. But he felt with greater completeness and some profundity. That little word contained all his sense of indignation and horror at one sort of wretchedness having to feed upon the anguish of the other - at the poor cabman beating the poor horse in the name, as it were, of his poor kids at home. And Stevie knew what it was to be beaten. He knew it from experience. It was a bad world. Bad! Bad! (136)

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고 스티비가 격한 괴로움을 느끼는 이 장면에서의 서술은 스티비가 사고의 명확함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기에 틀릴 리 없는 스티비의 인식 능력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 스티비의 방식을 차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나빠! 나빠!”하고 외치는 단락 마지막 부분의 분절과 단순함은 바보스럽지만 서술자는 그에 동화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5. Madness in Search of Totality

루카치(Georg Lukács)는 파편화되어 있고 삶의 진실을 외면하는 모더니즘 예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거부한다. 그런데 『소설의 이론』(*The Theory of the Novel*)에서 총체성과 관련해 소설 형식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의 논의는 콘라드를 포함하는 모더니즘 소설을 반드시 배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루카치가 그의 이론에서 반어라는 기법을 강조하는 것은 『비밀 요원』에서 반어가 주된 소설적 효과로 사용된다는 점과 연결되며, 어딘가에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물들이 만들어 내는 세계의 모습은 루카치가 옹호한 형식으로서의 소설의 세계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루카치는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The Ideology of Modernism*”)에서 모더니즘의 기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해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비판이 단순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콘라드가 시도한 것처럼 억압적인 사회적 전제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세계를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단순한 전형성을 넘어서 사회적 현실을 더욱 총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원리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소설의 차이는 루카치가 말한 것만큼 극단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설 세계의 완성은 객관적으로 보면 어딘가 불완전한 것이며, 주관적 체험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체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the completeness of the novel’s world, if seen objectively, is an imperfection, and if subjectively experienced, it amounts to resignation; *Theory of the*

Novel 71)는 루카치의 설명은 콘라드의 소설은 물론 여러 모더니즘 소설에서 발견되는 세계의 특성과 상통하며, “의미 내재성의 부재를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드러내는”(the immanence of meaning required by the form is attained precisely when the author goes all the way, ruthlessly, towards exposing its absence; 72) 방식은 『비밀 요원』에서 콘라드가 시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루카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주인공의 삶을 ‘소설적’이지 않은 것이라 비판한다. 영웅적 주인공이 균열 없이 온전한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서사시적(epic) 세계를 지나 개인들이 혼란을 마주하고 고민하게 되는 소설적 세계를 그린 근대 이후의(콘라드의 소설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에 그의 이론은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콘라드를 비롯한 모더니즘 소설은 불완전한 세계를 그리며 의미 내재성의 부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볼 때 오히려 루카치의 이론과 친연성을 가진다고까지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밀 요원』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결코 ‘정상적’이라 분류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사고에 대한 반성적 사고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위나 목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한다. “아무 것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인류에 대한 절망적이지만 그럴법한 불신의 순간들”(had such moments of dreadful and sane mistrust of mankind. What if nothing could move them?; 65) 경험하는 등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세계에 관해 자못 진지하게 걱정도 한다. 지금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를 보이기는 하지만 인류에 대한 열정과 관심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열정은 사라졌네. 세계는 평범하고, 절뚝거리며 힘이 없지. 그리고 광기와 절망은 힘이 있지. 그런데 힘이라는 건 바보들과 약자들과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얼간이들의 눈에는 죄악으로 보이지. ... 광기와 절망! 나에게 그것을 지렛대로 주면 나는 그걸로 세상을 움직일 거야.

All passion is lost now. The world is mediocre, limp, without force. And madness and despair are a force. And force is a crime in the eyes of the fools, the weak and the silly who rule the roost. . . . Madness and despair! Give me that for a lever, and I'll move the world. (244)

그는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광적으로 외치는 이와 같은 선언은 세계에 맞선 그의 투쟁이 언어의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여기서 교수는 세계에 대한 불신과 좌절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세계관이 그 자체로 이상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어에 대한 루카치의 설명은 가장 고립되어 있으며 파편적인 사고를 한다고 비판받을 만한 교수라는 인물이 이 소설을 철저한 비판주의로 읽는

독해에 반박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반어는 이 싸움이 몹시 절망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더 절망적이라는 것에까지 미친다. 즉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영혼의 비현실적인 이상성을 포기하고 이상과는 거리가 먼 세계에 의도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저열한 패배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어는 현실을 승자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패자 앞에서 그 승자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그리고 이 승리가 결코 궁극적인 승리일 수 없고 이념의 새로운 봉기에 의해 거듭 뒤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세계의 우세는 지나치게 조야한 무방항성이라는 그것의 힘 자체 덕분이라기보다는 이상의 무게에 눌린 영혼의 내적인 그러나 필연적인 문제성 때문이라는 것 역시 드러낸다.

It extends not only to the profound hopelessness of the struggle but also to the still more profound hopelessness of its abandonment—the pitiful failure of the intention to adapt to a world which is a stranger to ideals, to abandon the unreal ideality of the soul for the sake of achieving mastery over reality. And whilst irony depicts reality as victorious, it reveals not only that reality is as nothing in face of its defeated opponent, that it will always, again and again, be challenged by a final one, rebellions of the idea, but also that reality owes its advantage not so much to its own strength, which is too crude and directionless to maintain the advantage, as to the inner (although necessary) problematic of the soul weighed down by its ideals. (*Theory of the Novel* 86)

루카치에 따르면 철저한 비판인 것처럼 보이는 콘라드의 서술은 적응과 순응이라는 더 큰 패배를 피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루카치가 “싸움”이라 표현한 이 세계와의 관계맺음에서 교수는 자연히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제 힘이 될 수 있다 여겨지는 것은 “광기와 절망” 뿐이었던 것이다. 교수는 이 절망적 싸움에서 ‘정상적’ 사회에 순응하는 대신 “광기와 절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고 승리해 버린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국가의 우스꽝스러움을 마음껏 비웃는다. 이 때 교수를 패배자로 만든 현실은 루카치가 말한 대로 “이념의 새로운 봉기에 의해 거듭 뒤흔들리게 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현실에 대해 승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영혼의 내적인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그 끊임없는 투쟁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콘라드의 『비밀 요원』은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는 미친 예술”(a mad art attempting the inconceivable; 36)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려진 것은 의미의 충족의 완전한 부재이지만 그럼에도 작품은 풍부하고 원환적인 삶의 진정한 총체성의 충만함을 달성한”(what is depicted is the total absence of any fulfillment of

meaning, yet the work attains the rich and rounded fullness of a true totality of life; *Theory of the Novel* 126) 것이라는 소설에 대한 루카치의 옹호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콘라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의문시하게 하는 반어적 서술을 통해 개인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국가적 권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구하며 그를 통해 가능해지는 개별 존재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훌륭하게 그려낸다.

인용문헌

- Adorno, Theodor W. “Reconciliation under Duress.” *Aesthetic Theory*. Trans. Robert Hullot-Kentor.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8. 151-76.
- Berthoud, Jaques A. “*The Secret Agent*.” *Joseph Conrad: the Major Phase*. Cambridge: Cambridge UP, 1993. 131-59.
- Brantlinger, Patrick. *Rule of Darkness: British Literature and Imperialism, 1830-1914*. Ithaca: Cornell UP, 1988.
- Conrad, Joseph. *The Secret Agent*. London: Penguin, 2007.
- Harphem, Geoffry Galt. “Abroad Only by a Fiction: Creation, Irony, and Necessity in Conrad’s *The Secret Agent*.” *Representations* 37 (1992): 79-103.
- Lukács, Georg. “The Ideology of Modernism.” *Modernism: Critical Concepts i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Vol. 2. Ed. Tim Middleton. New York: Routledge, 2003.
- _____. *The Theory of the Novel*.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The MIT Press, 1978.
- Martin, William Alejandro. “For perverse unreason has its own logical processes: Masochism and Redemption in *The Secret Agent*.” *Conradiana* 36 (2004): 33-51.
- Moffat, Wendy. “Domestic Violence: The Simple Tale within *The Secret Agent*.”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1880-1920)* 37 (1994): 465-89.
- Oliver, Matthew. “Conrad’s Grotesque Public: Pornography and the Politics of Reading in *The Secret Agent*.”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5 (2009): 209-32.
- Sizemore, Christine W. “‘The Small Cardboard Box’: A Symbol of the City and of Winnie Verloc in Conrad’s *The Secret Agent*.” *Modern Fiction Studies* 24

(1978): 23-40.

Skinner, Stephen. "A Benevolent Institution for the Suppression of Evil: Joseph Conrad's *The Secret Agent* and the Limits of Policing." *Journal of Law and Society* 30 (2003): 420-40.

Tillyard, E. M. W. "The Secret Agent Reconsidered." *Essays in Criticism* 11 (1961): 309-18.

Walkowitz, Rebecca. "Conrad's Naturalness." *Cosmopolitan Style: Modernism beyond the Nation*. New York: Columbia UP, 2006. 35-53.

ABSTRACT

An Art of “Madness and Despair”:
‘Abnormal’ Individual and the ‘State’ in Joseph
Conrad’s *The Secret Agent*

Seohyon Jung

Joseph Conrad’s *The Secret Agent* questions the authority and absoluteness of the ‘State’ through the demonstration of myriads of ‘abnormal’ individuals. Underlying the seemingly private tragedy of Winnie and Verloc is the ‘State’ and its obsession towards normality. ‘Abnormal’ behaviors of the characters are described more as symptoms of the intrinsic violence of the national authority than as peculiar anomaly. Tenaciously deconstructing the dichotomy of normal/abnormal, Conrad also reveals the instability of the common belief in scientific knowledge, and thus presents ironic narrative style in *The Secret Agent*.

Who is the mad one indeed? Comparing Winnie with Stevie, the narrator blurs the boundary of madness. Still, many of the characters regard the State and the police as the agents serving to protect them by securing the ‘normality’ of the society. However, the ‘normality’ they protect is often rather awkward and coercive. Only under collective pretense, can the police and the State function ‘normally.’ The punishment imposed on ‘abnormal’ individuals consolidates the absoluteness of the State in each individual’s perception. Added on the skepticism towards the authority of the State is still more acerbic sarcasm cast on the anarchists. Although by definition defiant against the established orders, the anarchists in the novel turns out to be acquiescent individuals seeking the safeguard of the society.

Adopting the scheme of ironic narrative, Conrad involves the readers in the process of suspecting the social perception of normality and the security it substantiates. Conrad’s attempt may als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Lukács' theory of the novel. While portraying the hopelessness and vulgarity of reality, *The Secret Agent* paradoxically illuminates significant struggle against the absoluteness which is not real.

Key Words normality, madness, individual, authority, the State, police, anarchism, irony, Modernism, novel